

'24년 광역급행형 버스(M버스) 3개 노선 신설

-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... 인천·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

-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,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(이하 M버스) 3개 노선이 신규 운영을 시작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대광위)는 전문기관(한국교통연구원)의 타당성 평가 및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(12.17.)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'24년도 엠(M)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.
- M버스는 대도시권역* 내 2개 이상의 시·도를 운행하는 버스로, 기·종점 7.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.
 - *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라 수도권,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광주권, 대전권의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
 -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인천광역시(수도권) 및 경상남도(부산·울산권)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하였다. 이 중 연결성, 이동성,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 중구~서울 양재, 인천 연수구~서울 강남, 경상남도 거제~부산 간 3개 노선을 선정하였다. (☞노선도 참고 첨부)
 - 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,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'25년 내 운영을 개시*할 예정이다.
 - * 운송사업자 모집·선정('25.상반기) → 면허발급('25.상반기) → 운행개시('25.하반기~)

-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“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제시 시민들의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- “앞으로 모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| 책임자 | 과 장 | 정송이 (044-201-5065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최혜리 (044-201-5069) |
| | | 담당자 | 주무관 | 이광수 (044-201-5066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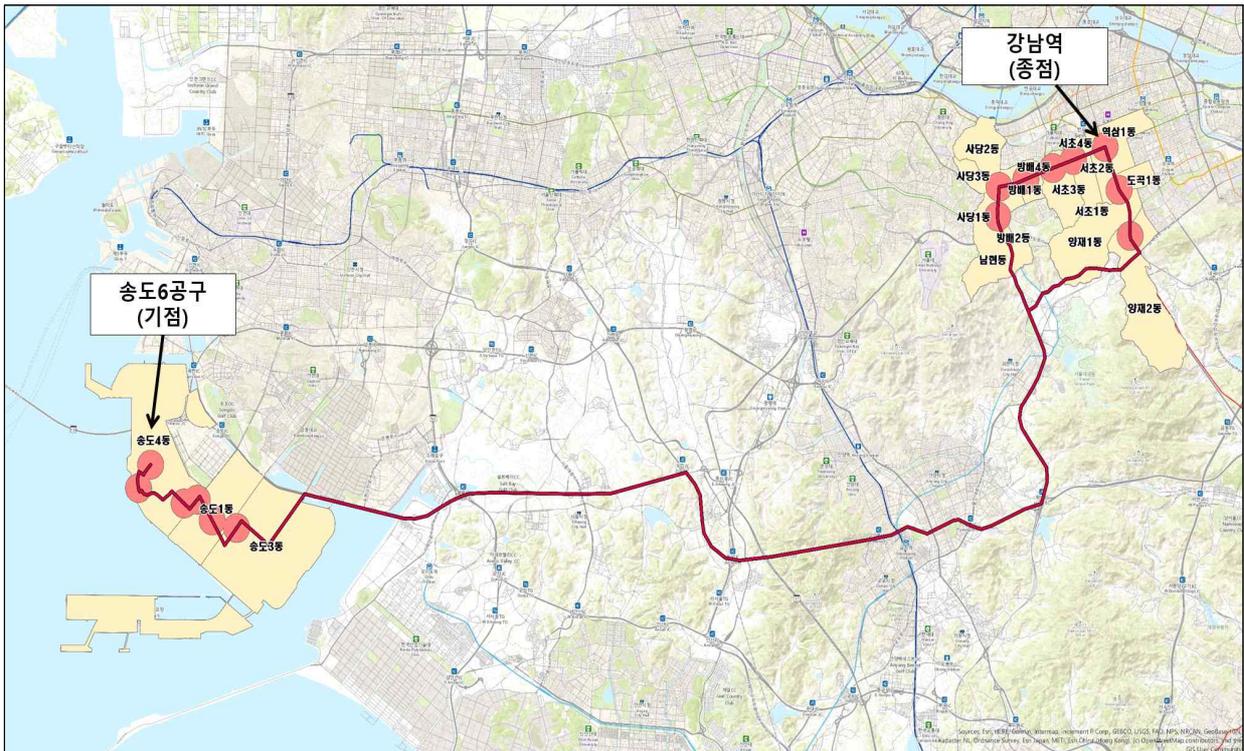
참고

'24년도 광역급행형 버스 신설 노선(안)

□ **[인천 중구]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~시민의숲,양재꽃시장**



□ **[인천 연수구] 송도6공구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~강남역**



□ [경남 거제] 삼오르네상스~부산역

